



초등학교 고학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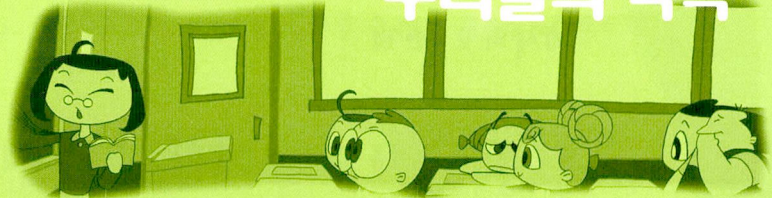
'우리들의 약속'



'우리들의 약속'

초등학교 고학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우리들의 약속



Contents

제작의도 · 소개	4
줄거리	6
아이들과 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7
성폭력 이해하기	10
〈우리들의 약속〉으로	12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알고 있니?	16

기 증

한수영작가상임소

제작의도·소개

1. 또래 사이의 가벼운 장난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폭력 예방 애니메이션에서는 또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장난이나 행동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화려한 영상물에 익숙한 세대임을 감안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개성있는 캐릭터와 재미있는 화면구성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아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교육보조자료로 제작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약속'은 부모나 교사의 직접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 영상물이라기보다는 아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영상물에 나오는 아이스끼끼나 똥침, 브래지어 끈 잡아당기기 와 같은 장난들은 성폭력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들을 표현한 것이며 어떤 경우 아이들의 현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끄집어 내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4.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소책자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영상물만 보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후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린이가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면서 성폭력의 뜻과 대처법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성에 관해 이야기 나눌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등 성폭력 예방 교육시 안내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았습니다.

줄거리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시간 : 약 13분

제작연도 : 2003년

초등학교 5학년인 다숨이의 반이 현장학습을 가는 날.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두 남자 친구(티비와 짱구)를 찾으러 간 컴퓨터실에서 다숨이는 야한 사진에 반 친구 민지의 얼굴을 붙여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다.

기분이 상한 채 돌아와 차에 오르는데 장난을 잘 치는 동현이가 다숨이에게 아이스끼끼를 하고, 다숨이는 복수로 똥침을, 동현이는 다시 찌찌뽕을 한다.

선생님은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 설명해 준다. 아이들은 성폭력을 한 사람은 화장실 청소 벌칙을 받기로 약속한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어느 날, 수업시간에 동이가 다숨이의 브레이저 끈을 잡아당긴다. 동이는 반성하고 약속대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 음란메일을 보내는 것도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티비와 짱구도 반성을 하고, 야한 사진 대신 현장학습에서 찍었던 사진을 아이들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뿌듯해 한다.

아이들과 성에 관해 이야기 할 때

1. 어떤 상황이든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믿어주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충분히 들어주길 원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아이와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때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고 다음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2.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해주겠다고 하세요.

아이들은 어른들 생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시고 아이를 먼저 살펴주세요.

3. 다그치지 마세요

아이들은 혼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감추게 되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곤 합니다. 성폭력 행동을 한 아이를 보게 된다면 무조건 혼내지 마시고 아이에게 '왜 그랬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는 성폭력인지 모르고 그랬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르고 그랬다면 성폭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아이 역시 다그치지 마시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세요.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아이가 안심하고 성폭력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으면 진실은 감춰집니다.

4. 신뢰감을 주세요

아이에게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도와줄 거라는 신뢰감을 주세요. 보통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이들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통해 성폭력 사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협박을 넘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아이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세요.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도와 줄 수 있어" 라고 평소 아이에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몸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에게 나와 친구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몸을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의 몸도 다른 사람이 만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나의 몸을 나쁜 기분이 들도록 만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마", "싫어요"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6. 성폭력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 성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지 궁금할 때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전문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심리상담 및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들의 약속〉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1.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 전에

1) 먼저 이 소책자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덜어 줄 것입니다.

2) 애니메이션을 선생님이 먼저 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보시고 내용과 교육의도를 미리 파악하세요.

3) 초등학교 고학년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과 달리 성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아이스끼기와 같은 행동이 저학년 때에는 별다른 의미없이 이루어지는 장난이라면 고학년 때에는 성적인 의미를 느낌으로 알면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4)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교육을 한다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후 이렇게

1) 소책자를 적극 활용하세요

O·X 퀴즈는 평소 아이들의 생각과 애니메이션을 보고 난 후의 생각을 비교해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입니다. 각자의 답안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끌어 내세요. 아이들 스스로 깨달아 가면서 배우는 재미 있는 교육시간이 될 것입니다.

2)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들의 약속〉에서처럼 아이들끼리 성폭력을 하면 어떤 벌칙을 받을지 정하고 약속하게 하세요. 아이들의 자발적인 약속은 성폭력 예방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3) 아이들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해주세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례 말고도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이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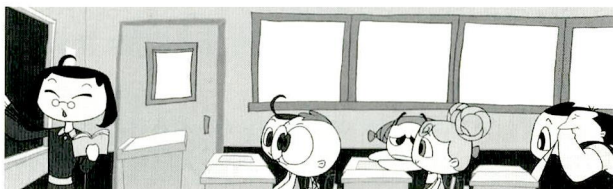
4) 아이들간의 차이와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해 주세요

같은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의 정도에 따라 아이들간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차이와 아이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생활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이해하기

1. 성폭력은 무엇인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기분 나쁜 느낌을 주는 행동이나 말로 굉장히 불편한 경험을 말합니다.



2.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성폭력인가요?

성폭력입니다. 소변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당사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장난이기 때문에 이런 장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태나 좇나와 같은 말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그런 말을 쓰는 게 왜 성폭력인가요?

원래 변태는 동물이 개체발생 과정 중 극심한 형태변화를 거치면서 성체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동의없이 폭력적인 형태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변태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좇나는 '매우, 많이' 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욕인 '좇'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어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듣게 되면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 되고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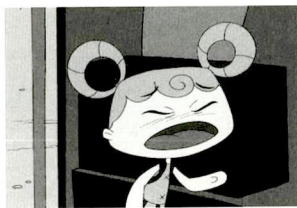


4. 성폭력을 하면 왜 나쁜가요?

- ▶ 아이스끼기, 뽕침, 찌찌뽕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당했을 때 기분은 어떠했나요?
- ▶ 누가 나에 대한 거짓말(누구와 누가 키스했대, 사귀대...)을 퍼뜨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 ▶ 만약 어떤 어른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면(수업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겨드랑이를 만지거나 첼로를 가르쳐 주면서 뒤에서 껴안거나...) 어떨까요?

이런 일을 겪는다면 내 느낌은 어떨까요?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 성폭력입니다. 나라면 어떨까? 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5. 친구들한테는 '싫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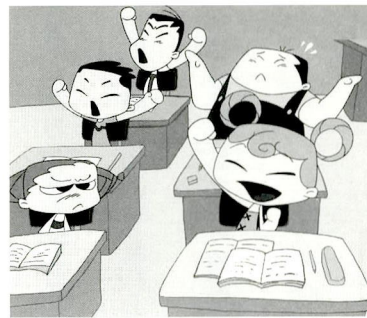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도 '싫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편지로 써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반드시 부모나 선생님께 말씀드리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싫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친구나 어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주변의 믿을만한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나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다른 어른들이 꼭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7. 성폭력을 하는 어른들에게는 어떤 벌칙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벌칙을 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끌어낸다. 아이들 수준에서 운동장 열바퀴 돌기, 소원 한가지 들어주기 등의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벌칙을 주려면 나 혼자보다는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등)과 같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칙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어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른들끼리 정한 벌칙(가령 법 등)도 있으니 어른들에게 말해서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니?

나는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음 문제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

- 1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기분 나쁘다면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
- 2 내 몸을 함부로 보이는 것도 성폭력일 수 있다. ☒
- 3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이성)친구가 하자고 하면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다. ☐
- 4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가도 모른 채한다. ☐
- 5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른이라도 분명히 싫다고 말한다. ☐
- 6 잘 아는 어른이라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
- 7 누군가 나에게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해야 한다. ☐
- 8 장난을 할 때 친구가 싫다고 하는 것은 내송이거나 자기가 불리해서 그러는 거다. ☐
- 9 기분 나쁜 욕도 성폭력일 수 있다. ☐
- 10 이메일이나 포토메일로 야한 사진을 보내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

※ 혼자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친구들과 토론해서 정답을 찾아봐도 좋아요~



정답 알아보기

- 1 yes, 당연히 싫으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 2 yes, 나의 몸을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보도록 강요하는 것도 성폭력일 수 있어요.
- 3 yes, 내가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성)친구와 멀어지지는 않을걸요. 내 느낌이 중요해요.
- 4 no, 친구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모른 척 하면 안돼요.
- 5 yes, 어른이라고 기분나쁜 일을 참으면 안돼요.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 6 yes, 잘 아는 어른이라도 부모님께서 미리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7 yes, 누군가 나에게 싫은 일을 강요하면 당연히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 8 no, 친구들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니, 당연히 그말대로 장난을 멈춰야 해요.
- 9 yes, 기분 나쁜 욕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10 no,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 사진보내기 등은 모두 성폭력에 속합니다.

● 맞은 갯수 10~8개

우와! 당신은 성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관심을 가진다면 내 몸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 줄 수 있을 거예요.

● 맞은 갯수 7~5개

아깝다! 조금만 더 성폭력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나 자신 또한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 맞은 갯수 4~0개

성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아끼고 남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관련 자료문의, 법률/의료 상담 등 성폭력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무전화 : (02) 338-2890~2

* 상담전화 : (02) 338-5801~2

또한,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에서는 전국 130여 개의 성폭력상담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MEMO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a memo.

“우리들의 약속”

초등학교 고학년 성폭력 예방비디오

· 기 획 ·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소장)

김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기획 · 보조 조선희 / 김혜정
- 작가 이응률 (어린이연극학교, 초등교사)
- 제작 아지트 (02-877-6293)
-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늘봄 (02-313-5326)
- 비디오 제작 2003년 11월 30일
- 자료집 제작 2004년 4월 29일
- 가격 자료집포함 15,000원

구입문의 : 02-338-2890

이 비디오와 자료집은 경기도청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